

국가폭력의 긴 그림자:

1980년 사북 사건 피해자 실태 조사 결과

황인옥*

국문요약

‘사북 사건’은 1980년 4월 계엄 권력에 대항했던 강원도 작은 광산촌의 주민 중 수백 명을 표적으로 삼아 집단적으로 저질러진 국가폭력(state violence)을 지칭한다. 사북 사건의 피해자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재판에 회부되어 형이 확정되었던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경찰에 영장 없이 연행되어 구타, 고문 등 국가의 대리인들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저지른 끔찍한 폭력을 당하고 풀려난 사람들이다. 마지막 부류는 부모 세대가 겪은 억울한 피해로 인해 가난과 고통, 트라우마를 대물림하고 있는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사북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정선지역사회연구소가 2022년 8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최초의 피해 실태 전수 설문 조사의 결과를 소개하고 기존의 구술 연구와 비교하여 그 의미를 분석한다. 공통질문에 대한 피해자들의 응답 결과는 그동안 사북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피해 양상이 관련자들의 삶은 물론 자녀 세대의 삶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주제어: 사북 사건, 국가폭력, 국가 테러리즘, 피해자 설문 조사, 트라우마

* 정선지역사회연구소 소장, inuk077@gmail.com

I. 머리말

1. 사북 사건에서 국가폭력의 양상

사북 사건은 일반적으로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일대에서 벌어진 광부와 부녀자들이 일으킨 소요 사태, 또는 공권력에 맞선 항쟁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¹⁾ 그러나 2008년 4월 8일 대통령 직속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80년 사북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면서 이 사건을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게 규정하였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바라본 ‘사북 사건’은 사북광업소 광부와 주민들이 사북읍 일대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협상을 통해 사태 해결에 합의하였는데, 같은 해 5월 6일부터 6월 17일 동안 1군 기업사 사북 사건 합동수사단이 200여 명의 주민을 재차 정선경찰서에 연행, 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가한 사건”(진실화해위원회 2008)이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사북 사건’이라는 용어도 바로 그 맥락을 잇는 것이다. 이 글에서 ‘사북 사건’은 1980년 4월 기업 치하에서 공권력에 대항했던 강원도 작은 광산촌의 주민 중 수백 명을 표적으로 삼아 집단적으로 저질러진 국가폭력(state violence) 사건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사북 사건에서 국가폭력의 양상은 크게 여섯 개의 국면(phases)으로 나뉜다. 첫째는 4월 21일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노조사무실 앞에서 당시 노조지부장 등 지도부의 어용적 행태에 항의하는 농성 광부들을 향해 사북경찰 이은선 등이 지프차를 돌진시켜 원일오 광부 등 여러 명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도망친 도발의 국면(phase of provocation)²⁾이다. 둘째는 광부들과 부녀자들

1) 1987년 이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보다 ‘광주사태’라는 말이 일반적이었듯이, 이 사건도 2000년대 이전에는 당사자들조차 ‘사북사태’라는 말을 쓸 정도로 사건에 대한 인식이 고착되어 있다가(황인오 1984),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사북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한 후 ‘사북항쟁’ 또는 ‘사북 사건’ 등 대안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아졌다(역사문제연구소 2020a).

2) 1980년 당시 21세 청년 광부로 760명 후산부였던 송계호 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그때 제가 어디 이발관이었냐면, 사북에 아리랑이발관이라고 어디 있냐면 사북 안경다리 앞에 있었어요. 아리랑이발관에서 머리를 깎고 있는데 으쌰으쌰 하면서 막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광부들이. 이 안경다리 쪽으로. 그때 뭐 수백 명. 수백 명

이 부당한 공권력의 탄압에 맞서 항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4일 동안 알리지 않은 채 언론 통제를 통해 사건의 원인을 은폐한 고립의 국면(phase of isolation)이며, 셋째는 선부른 진압 작전으로 경찰이 패퇴하고 오히려 사태가 악화되자 거짓된 불처벌 약속으로 광부와 부녀자들을 속이고 해산한 기만의 국면(phase of deception)다. 넷째는 공권력이 촉발한 광부들의 분노와 폭력상을 부각시켜 이를 이유로 수백 명을 영장 없이 연행하고, 정선경찰서 임시조사실과 유치장, 영창 등지에서 집단 폭행과 성적 유린 행위를 포함한 잔혹한 고문을 통해 이웃과 동료에 대한 상호 고발과 거짓 진술을 강요하여 인간의 존엄을 파괴한 테러리즘의 국면(phase of terrorism)이다. 다섯째는 조사과정에서 당한 폭력과 고문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겁박하고 지속해서 감시하며 피해자들끼리 서로 반목하게 만들어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한 겁박의 국면(phase of intimidation)이며, 여섯째는 대규모의 국가폭력 사건이 벌어지고 피해자들이 고통이 호소해 온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응당한 사과와 진실규명, 명예회복과 보상 등 구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 당사자들과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을 가난과 고통 속에 버려두고 트라우마를 겪게 만든 방관 국면(phase of neglect)이다. 특히 마지막 국면의 국가폭력은 국가 테러리즘(state terrorism)³⁾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그 정치적 의도와 잔혹성이 두드러진다. 블레이크리(Blakeley 2012)가 지적했듯이, “직접적인 희생자를 넘어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audience)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들을 불법적으로 표적 삼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국가폭력과 구분되는 국가 테러리즘의 특징을 가졌다고

이 그때 이 어깨동무 스크럼[Scrum]을 하고 으쌰으쌰하면서 경찰 물러가라 하고, ‘경찰이 사람 죽었다’ 이래 하면서 그때 이렇게 막 외치면서 내려와서. 머리를 깎고 나오니까 사복파출소가 점령이 됐더라고. (중략) 뭐랄까 상황이 살벌했고, 위기를 느꼈고.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해서, 집에서 못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았죠. 두문불출, 나오면 어디 잘못될까 해서 대부분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집 안에 전부 다 갇혀 있었고, 티비만 그냥 보고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티비 뉴스도 [사복 사건이] 나오질 않았고, 나중에 이제 나왔었죠(사복공공도서관 2020).”

- 3) 테러리즘을 비국가 행위자로 제한하지 않고(Hewitt 2021) “정치적 목적에서 조직적·집단적으로 행해지는 암살·고문·추방·대량 처형 등의 폭력 행위, 또는 그것을 수단으로 폭력의 직접적 희생자를 넘어서는 수많은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거나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겁박하려는 행동”으로 정의한다면(Blakeley 2012), 사복 사건의 마지막 국면에서 저질러진 국가폭력은 차라리 국가 테러리즘(state terrorism)의 개념에 가깝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북 사건은 도발, 고립, 기만, 테러, 겁박, 트라우마 방관 등 국가 폭력의 다양한 양상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만큼, 국가폭력 극복과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사건의 의미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와 재조명이 필요하다. 사북 사건은 “아만적이고 잔혹한 국가폭력의 시작과 끝을 낱알이 보여줌으로써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큰 교훈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황인옥 외 2021, 60).

2. 사북 사건 피해자의 양상

사북 사건의 국가폭력 피해자들⁴⁾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그동안 많이 알려진 관련자들로서 재판에 회부되어 형이 확정되었던 광부와 부녀자들, 그리고 노조 간부들이다.⁵⁾ 두 번째 부류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구속자 명단에는 없고 당시 연행자 명부에만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내사, 첩보, 채증 또는 고발로 경찰에 영장 없이 연행되어 구타, 고문 등 국가의 대리인들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끔찍한 폭력을 당하고 풀려난 사람들이다.⁶⁾ 세 번째 부류는 가장 눈에 띄지

4) 이 글에서 다루는 국가폭력의 피해자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1980년 사북에서 발생한 광부들의 저항을 진압하고 상호 충돌하는 과정에서 광부 22명, 일반인 6명 등 최소 28명의 민간인 피해자가 생겼고(강원도지방경찰청 보안과 1980a), 4월 21일과 22일 사이에 이덕수 순경을 포함하여 77명의 사상자가 생기는 과정에서 진압 병력 측에도 피해가 발생했다.(강원도지방경찰청 보안과 1980b) 달아난 노조지부장 대신 광부들과 부녀자들에게 붙들려서 가혹 행위를 당했던 지부장의 아내도 사건 피해자의 범주에 있다. 그러나 이 글은 국가 폭력의 피해 양상에 초점을 둔 만큼, 피해의 원인이 다른 경우에는 조사와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5) 사북 소요 사태 관련으로 조사받고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31명이다. 그중에는 광부가 24명, 부녀자가 4명이고, 노조간부도 3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노조 관련자 중에는 사건을 배후 조종했다는 누명을 쓴 전국광산노조의 황한섭, 최정섭(사망)과, 광부들에게 어용으로 지목당했던 동원탄좌 노조지부장 이재기(사망)가 있다(황인옥 외 2021, 286).

6) 사건 관련으로 불법 연행되어 구타 고문을 당한 후 구속되지 않고 풀려난 사람들의 경우가 피해 사실을 가장 입증하기 어려운 부류다. 이는 사북 사건에서 가장 두드러진 피해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재 정선지역 사회연구소 등 민간에서 확보한 연행자 명부를 통해 추정하는 숫자는 200여 명이 넘는다. 이런 피해자일수록 사건에 대해 여전히 함구하고 있는 경향이 크므로, 정확

않았던 사람들인데 부모 세대가 겪은 억울한 피해로 인해 가난과 고통, 트라우마를 대물림하고 있는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 가족들이다.⁷⁾

3. 사북 사건 피해 조사 현황

2001년 9월 이원갑·신경 등 핵심관련자 30여 명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수사관들이 사용한 고문도구를 가지고 자신들이 겪은 고문 상황을 눈물로 재연하였다(공용철 2004, <사진 1>).

〈사진 1〉 사북 노동항쟁 관련자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
2001년 9월 20일



한 피해 규모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당국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정선지역사회연구소 2021).

- 7) 사북 사건의 피해는 40년이 넘는 방관 또는 트라우마의 국면에서 그 다음 세대로 전이되었다. 사북 사건의 피해자들을 찾아 나선 길에서 자녀 세대의 불행과 자주 마주치게 된다. 사북 사건 고문 피해자 박근식(사망)의 장남은 아버지의 실직 이후 현장 노동 과정에서 감전 사고로 팔다리를 잃었으며, 고문 피해자 노금옥과 윤원철(사망)의 자식들도 일찍 학업을 포기하거나 사망하는 등 불행을 겪었다. 동명이인으로 잡혀가 고초를 겪고 나온 고문피해자 이해용(사망)의 장남도 사북 사건 이후 인생행로가 순탄치 않았다(박봉남 2020). 피해자 자녀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부모 세대가 겪은 국가폭력 피해의 대물림이자 국가가 방치한 고통의 부산물이라고 볼 이유는 충분하다.

그 이후 방송과 인터뷰 등을 통해 고문 피해에 관한 증언이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사북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심층 조사연구는 박철한의 2002년 연구 “사북항쟁연구: 일상, 공간, 저항”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박철한은 사북 사건의 주모자로 알려진 이원갑과 신경⁸⁾, 집행유예로 풀려난 윤병천·오항규, 그리고 고문만 받고 풀려난 부녀자 이명득(사망)⁹⁾ 등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청취했다.

2017년에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 반의 김아람 등이 신경·이명득·이정근·황인오¹⁰⁾ 등 4명을 면담해 피해 사실을 구술로 기록했고(김아람 외 2017), 2018년에는 이원갑·최돈혁·윤병천 등 당시 항쟁 참여 광부 외에 이원갑의 아내 조순란, 원일오의 아내 장분옥, 최돈혁의 아내 이옥남 등을 면담하고 배우자로서 겪은 피해의 양상을 기록했다(문민기 외 2018, 역사문제연구소 2020b-c). 2018년에는 현대사기록연구원 송철원이 민주화운동기념

8) 이원갑과 신경은 계엄포고령 위반과 소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005년 민주화 운동관련자로 인정된 후, 2015년 2월 12일 재심 법정에서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이씨 등은 광산노조 본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탄원서 제출 등에 관해 논의했을 뿐 계엄포고령이 금지한 불법 집회를 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경찰과 광부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해, 소요를 선동한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경찰과 군검찰이 20여 일 간 불법 구금하고 물고문과 구타로 받아낸 허위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김선식 2015).

9) 이명득은 당시 지장산 부녀회장으로서 주민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5월 어버이날에 정선경찰서로 연행되어 고문을 당했다(국사편찬위원회 2017). 고문 후유증을 호소하던 이명득은 제1기 과거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하고, 노금옥·전선자(사망)·김분연(사망)과 함께 정선경찰서 임시조사실에서 받은 성적 고문에 관한 증언 영상을 남겼다(정선지역사회연구소 2018). 2019년 4월 정선경찰서를 향의 방문하고, 이듬해 사북항쟁 40주년 기념식에서 국가폭력의 증언자로 국가 사과를 촉구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 10월 2일 자택에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10) 황인오는 사북 사건 당시 24세로 보안사가 작성한 초기 검거대상자 명부에는 “극렬 행동대원”이자 “연락책”으로 기록되어 있다가, 접촉조사대상자(중점조사대상)로 분류되어 다음과 같은 혐의로 수배되었다: “이덕수 순경 폭행치사. 4.26. 고한 다방에서 ① 총업원 난동은 민중봉기다 ② 회사 과장 계장급 지배계급은 혼이 나야 한다 ③ 신학대학생 3명 및 도시산업선교회 이소선(전태일의 모친)과 접촉.”(동해물산 1980) 그러나 황인오는 검거망을 벗어나 서울로 피신해 있던 중 신군부의 광주 학살 소식에 분개하여 권운상 등 다른 재야인사들과 함께 미스유니버스 대회장 접거를 시도하다가 1980년 6월 27일 체포되었다. 이덕수 순경 사망과 연관성을 찾지 못한 지역 경찰을 대신해 치안본부에서 사건을 수사한 후 사북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므로 다큐멘터리 “먼지, 사북을 묻다”의 감독 이미영은 황인오가 사북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송철원 2018, 김아람 외 2017).

사업회와 함께 사복 사건 주요 관련자인 이원갑·신경·윤병천·이명득·안원순과 황인오로부터 피해 사실¹¹⁾을 청취해 구술 기록을 남겼다(송철원 2018).

가장 최근이자 본격적인 피해 조사 연구는 정선지역사회연구소가 재단법인 진실의힘과 함께 실행한 것이다.¹²⁾ “1980년 사복항쟁 시기 국가폭력의 실상과 특이점에 관한 조사보고서”는 사복항쟁 41주년이 되는 2021년 4월 2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국가폭력’이라는 단일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사복 사건을 분석한 최초의 시도이자 사건 피해 양상에 관한 종합적 연구 성과물이다.

조사원으로 참여한 박다영과 한정원은 기존 피해자 구술자료를 모두 검토하는 한편,¹³⁾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복 사건의 피해자들과 2세대 가족 등 15인을 직접 만나 피해 상황을 구술 기록으로 남겼다(박다영·한정원

11) 청년 광부 황인오는 도피 생활 중 사복에 내려왔다가 뒤늦게 체포되어 단독 조사를 받았지만, 그가 겪은 국가폭력의 양상은 충격적이었다: “80년 6월 27일 체포돼 정선 경찰서에서 밤새도록 손과 발목에 수갑을 찬 채 코에 물 붓기·고초가루물 고문·비녀 꼽기·통닭구이·무릎에 몽둥이를 끼우고 경찰관 3명이 교대로 뛰어내리기·발가벗고 거꾸로 매달려 비행기 타기·7~8명이 몽둥이와 고무호스로 무차별 구타하기·손톱 밑을 바늘로 찌르기 등 각종 고문을 당했다는 것이다. (중략) 또 서울로 이첩돼 6월 28일 계엄사 합수본부 산하 치안본부 특수대에서 당시 특수대장 안희상 총경(87년 사망) 지휘 아래 윤충훈 오아무개 유아무개 씨 등 경찰관들과 헌병 7~8명으로부터 고문을 당한 뒤, (중략) 아무 관련이 없는 자신의 여동생(당시 25살)이 6월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하실에 있던 치안본부 특수대장실로 불려와 안희상 총경의 지시를 받은 특수대 3반장 권아무개 경감의 지휘하에 윤충훈 씨 등 3명의 경찰관이 황씨 및 함께 조사를 받던 권운상(35) 씨 등이 보는 앞에서 동생을 발가벗기고 수갑을 뒤로 채워 코에 물을 붓는 고문을 두 차례나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겨레사회부 1988) 황인오는 1980년 7월 8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경위에게 전기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근안은 그로부터 6년 후 서울대생 박종철을 물고문해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다.

12) 정선지역사회연구소는 사복항쟁 시기 벌어졌던 국가폭력의 진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20년 4월 재단법인 진실의 힘에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진실의 힘은, 더 늦기 전에 ‘당사자의 언어’로 된 국가폭력에 관한 기록이 사회적 담론장에 나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정선지역사회연구소·진실의힘 2021).

13) 연구팀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08년 보고서를 기초로, 서강대 인문학연구소의 기록(2000), 이원갑과 신경의 재심 기록(2010~2015), 국사편찬위원회 구술 기록(2017)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구술 기록(2018) 등 기존 자료를 모두 검토하면서 국가폭력 관련 내용을 분류하고 정리하였다. 특히 최근 사복 사건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증언을 발굴하고 있는 사복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팀의 인터뷰 자료(박봉남 2020)가 보고서 완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2021). 피해자 중 강운호¹⁴⁾·구정우·김해용·신경·윤병천·이완형·이원갑·최돈혁¹⁵⁾ 등 9명은 사북 사건의 관련자들이고, 나머지 6명은 김옥현(김해용의 딸)·손광규(고 전선자의 남편)·이상기(고 오항규의 아내)·오선학(고 오항규의 아들)·이정근(고 이명득의 남편)·최옥자(고 전효덕의 아내) 등 관련자의 가족 또는 자녀들이었다.

4. 사북 사건 피해자 조사의 취지와 방향

현재까지 사북 사건과 관련한 피해 증언을 바탕으로 정선지역사회연구소는 생존 피해자에게 공통질문을 제시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했다.

조사 대상을 분석할 수 있는 항목 5개¹⁶⁾와 피해 조사 15개 항목 등 총 20개 항목의 공통질문으로 구성했다. ‘사건으로 인한 피해 조사 항목’ 15개는 사건 관련 불법 연행과 구금, 공권력에 의한 구타와 고문, 광부 또는 부녀자들에 의한 폭행 피해, 동료와 이웃에 대한 고발의 강요, 구속과 처벌, 전직과 이직 또는 해직, 거주지 이전, 육체와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 경제 상황에 미친 영향, 사건 후 트라우마, 당사자 삶의 만족도, 자녀들의 삶에 미친 영향 등 국가폭력의 여러 국면에서 사북 사건의 피해자들이 경험한 것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한 공통질문들이었다(〈붙임자료1〉 1980년 사북 사건 피해 실태 조사 설문지 참조).

14) 1980년 당시 사북광업소 무기고를 손괴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강운호는, 2022년 1월 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제1부(신교식 부장판사)에서 열린 재심 판결에서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홍춘봉 2022).

15) 최돈혁은 사북 지사에서 경찰관과 대립하는 채증 사진을 근거로 체포되어 고문을 받았고, 특수공무방해치사 등 무리한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사북민주항쟁동지회의 부회장으로서 피해자 사이의 화해와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던 중 2021년 8월 30일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16) 피해자의 주거지, 직업, 성별, 나이와 함께 사건과의 관련성을 묻는 항목이 포함되었다.

Ⅱ. 조사 방법과 대상

사북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의 모집단은 당시 기소자 명단이나 합동수사단 연행자 명부에서 확인되는 관련자와 배우자, 그 자녀 또는 가족으로 한정했다. 이 조사는 현재까지 연락처가 확인된 피해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목표로 했다. 피해자들의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북민주항쟁동지회가 제공한 구속자 명단과 회원 주소록과 정선지역사회연구소에서 확보한 1980년 당시 연행자 명부와 연락처를 활용했다.

1980년 사북 사건 피해 실태에 관한 조사는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한 달간 진행하였는데, 관련자들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노령이어서 직접 방문 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건 이후 많은 관련자들이 사북을 떠나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어서 방문 조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 감염 등의 사정으로 직접 접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응답을 받았다. 실제 조사 대상과 피해자 이름, 장소, 일시 등은 다음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 사북 사건 피해자 실태 조사 현황

차례	조사 대상	관계	연령	거주 지역	조사 일시	조사 방식
1	이완형	피해자	70대 이상	강원 원주	8. 19. 오전 10:41	방문조사
2	이완형의 아내	피해자의 배우자	70대 이상	강원 원주	8. 19. 오전 11:01	방문조사
3	황인오	피해자	60대	경기/인천	8. 19. 오후 1:35	온라인 조사
4	이원갑	피해자	70대 이상	강원 정선	8. 19. 오후 1:55	온라인 조사
5	노금옥	피해자	70대 이상	강원 원주	8. 29. 오후 4:18	방문조사
6	박근식의 아들	피해자의 가족	60대	강원 원주	8. 29. 오후 5:11	방문조사
7	박근식의 아내	피해자의 배우자	70대 이상	강원 원주	8. 29. 오후 5:35	방문조사
8	신철수	피해자	70대 이상	강원 원주	8. 29. 오후 6:37	방문조사
9	신철수의 아내	피해자의 배우자	70대 이상	강원 원주	8. 29. 오후 6:57	방문조사
10	윤병천	피해자	70대 이상	강원 정선	8. 30. 오후 4:00	방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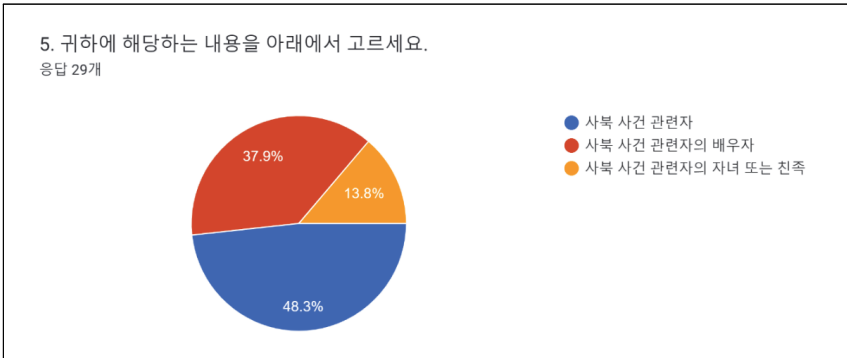
차례	조사 대상	관계	연령	거주 지역	조사 일시	조사 방식
11	김해용의 아들	피해자의 가족	50대	강원 정선	8. 30. 오후 4:25	방문조사
12	최돈혁의 아내	피해자의 배우자	70대 이상	강원 태백	8. 30. 오후 5:40	방문조사
13	김영복	피해자	70대 이상	강원 태백	8. 30. 오후 6:47	방문조사
14	김해용	피해자	70대 이상	경북 봉화	8. 30. 오후 7:45	방문조사
15	안원순	피해자	70대 이상	강원 정선	8. 31. 오후 2:26	방문조사
16	안원순의 아내	피해자의 배우자	70대 이상	강원 정선	8. 31. 오후 2:27	방문조사
17	이명득의 남편	피해자의 배우자	70대 이상	강원 정선	8. 31. 오후 3:16	방문조사
18	정인교의 아들	피해자의 가족	40대	강원 정선	8. 31. 오후 3:53	방문조사
19	정인교의 아내	피해자의 배우자	60대	강원 정선	8. 31. 오후 4:04	방문조사
20	이원갑의 아내	피해자의 배우자	70대 이상	강원 정선	9. 2. 오후 7:02	방문조사
21	황한섭의 아내	피해자의 배우자	70대 이상	경북 영주	9. 3. 오후 3:06	방문조사
22	황한섭	피해자	70대 이상	경북 영주	9. 3. 오후 3:48	방문조사
23	신경의 아들	피해자의 가족	50대	경북 경주	9. 3. 오후 6:52	방문조사
24	구정우	피해자	70대 이상	전남 화순	9. 4. 오후 3:20	방문조사
25	안재	피해자	60대	경기 광주	9. 8. 오후 1:30	방문조사
26	강윤희	피해자	70대 이상	경기 광주	9. 8. 오후 3:22	방문조사
27	원일오의 아내	피해자의 배우자	70대 이상	경기 성남	9. 8. 오후 4:48	방문조사
28	황인오의 아내	피해자의 배우자	60대	경기 부천	9. 10. 오후 1:12	방문조사
29	신경	피해자	60대	경북 경주	9. 29. 오후 2:20	온라인 조사

Ⅲ. 조사 결과 분석

1. 응답자의 분포

이번 조사에는 모두 29명이 참여하였는데, 그 중 48.3%(14명)는 사북 사건 관련자이고, 37.9%(11명)는 사북 사건 관련자의 배우자, 13.8%(4명)는 관련자의 자녀였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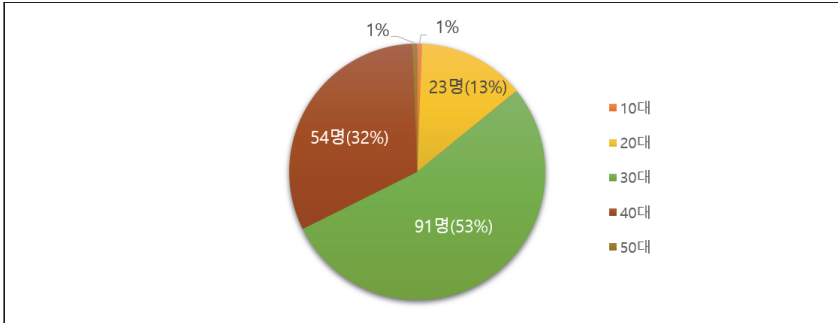
〈그림 1〉 사복 사건 피해 실태 응답자 분포



〈그림 2-1〉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복 사건 연행자 명단¹⁷⁾ 중 나이를 알 수 있는 170명을 대상으로 연령 분포를 분석한 자료다(정선지역사회연구소 2021). 사복 사건 당시 연행된 사람 중 대다수는 30대(약 53%)와 40대(32%)였다. 42년이 지난 지금 이들 중 산술적으로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된 수만 76명(45%)에 달하고, 진폐 후유증과 고문 후유증 등 건강 악화로 인한 사망자가 적지 않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¹⁸⁾, 사복 사건에서 국가폭력의 피해자 중 상당수는 사망·노화·병환 등으로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하기 힘든 상태에 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 17) 현재 확보된 사복 사건 연행자 명단은 모두 185건으로, 구속자 명부 외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 조사과정이나 관련자들의 재심 과정에서 확보된 용의자 명단을 종합한 것이다. 경찰이 작성한 여러 개의 명단은 대체로 미완성인 데다 중복되거나 사건 유형별, 검거 시점별로 별도 작성한 것도 있어서, 연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전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 사복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까지 받은 사람들 중에, 현재까지 발견된 용의자 명단에 이름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찰 문서고에는 연행자 명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사복 사건으로 연행되어 구금된 사람의 규모는 적어도 200명 많게는 4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정선지역사회연구소 2021).
- 18) 사복 사건 피해자로 구성된 단체인 사복항쟁동지회(회장 황인오)의 회원 주소록 명부에 있는 35명 중 절반이 넘는 18명은 이미 사망하여 더 이상 본인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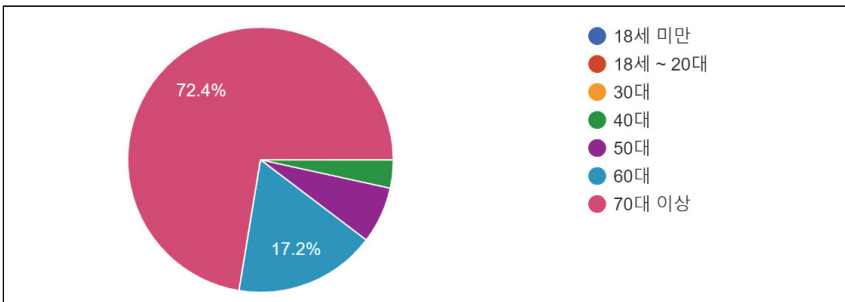
〈그림 2-1〉 사북 사건 당시 연행자 연령 분포



주: 정선지역사회연구소가 확보한 사북 사건 연행자 명단 185명 중, 나이가 확인된 17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임.

이와 같은 사실은 이번 조사의 응답자 분포로도 확인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연령대는 7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았고(72.4%, 21/29), 60대를 합하면 거의 90%에 달했다. 사건 당시 관련자들의 나이가 대부분 30~40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이들 대부분이 고령자이며, 당시 10~20대였던 자녀들도 대부분 40~50대의 중년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2〉 참조).

〈그림 2-2〉 사북 사건 피해 실태 응답자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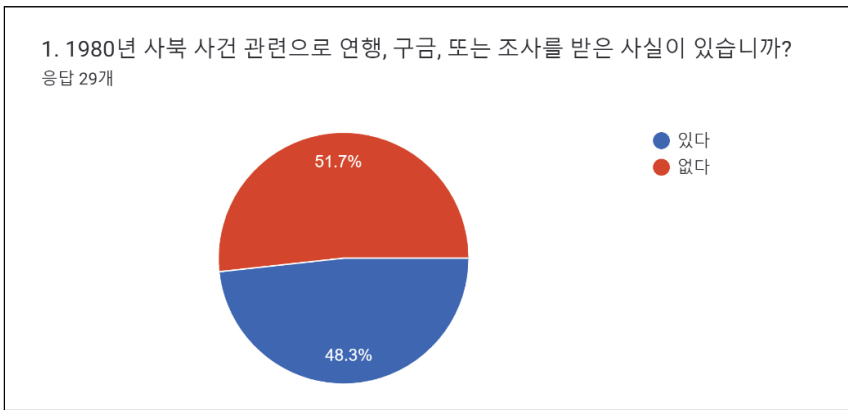


2. 불법 연행과 구금 경험

사태 수습 과정에서 “절대로 실력행사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¹⁹⁾ 일단 광

부들을 해산했던 계엄 당국은 약속을 깨고 곧바로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협상 타결 직후인 4월 27일 정선경찰서에는 현지수사반이 설치되었으며, 광부들이 작업장으로 복귀하던 28일부터 계엄사는 보안부대·검찰·중앙정보부·경찰 등으로 ‘사북 사건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있었다. 용의자 명단에 따른 첫 검거 작전은 5월 6일 저녁에 시작되었다.²⁰⁾ 이번 조사에 응한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사북 사건 관련 당사자들(48.3%, 14/29)은 예외 없이 연행 구금된 경험이 있었다(〈그림 3〉 참조). 응답자의 대부분은 검거 선풍이 일었던 5월에 연행되어 수일 또는 수십 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그림 3〉 사북 사건 불법 연행 및 구금 피해 실태



- 19) 경찰 당국의 입회 아래 광산노조위원장 최정섭과 사북광업소장 류환규가 서명한 1980년 4월 24일자 최종합의문에는 "10.경찰당국은 이번 사태수습에 절대로 실력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과 "11. 금번 사태에 대한 문제는 회사와 당국이 최대의 노력으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 20) 이원갑 씨, 신경 씨 등 10여 명은 5월 6일 저녁 7시경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북읍사무소를 찾았다. 그런데 읍장이 회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불법 집회로 계엄사령관 명에 의해서 전원 체포한다”는 외침과 함께 M16 소총을 앞세우고 군인들이 회의실로 쳐들어왔다. 이원갑 씨, 신경 씨를 포함한 사람들은 읍사무소에서 끌려 나와 버스에 실려 개머리판으로 폭행당하며 정선경찰서로 연행되었다(정선지역사회연구소·진실의힘 2021). 이 날 합수단은 당시 김원대 부읍장에게 이러한 함정 수사에 협조하여 일일이 전화를 걸어 유인하도록 협박하였던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박봉남 2020). 공권력이 공식 문서를 통해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깨고, 사태 수습에 앞장섰던 광부 대표들을 거짓으로 유인하여 일거에 체포해 간 것은 아무리 너그럽게 보아도 비겁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그런데 사북에서 불법 연행과 구금은 사건 직후인 5월 언저리에 국한되지 않고 훨씬 길게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목격자 증언이 최근에 나왔다. 당시 동원탄좌 지장산 사택에 살았던 한 전직 광부는 최근, 사북에서 불법 연행과 구금이 9월까지도 이어졌다고 증언했다.

면담자: 그러면 작은아버지께서는 선생님 여기 사북에 오기 전부터 여기 사북 710갱에 계셨으니까 그 사북 사태가 났을 때, 그때 그 얘기를 좀 들어보셨어요? 작은아버지한테?

구술자: 그런데 제가 작은집에 9월에 와서 취직을 해 가지고 있을 당시에는, 경찰들이 밤으로[밤마다] 거 가답자, 사진 찍힌 사람들은 밤으로 가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 갖다 붙들어서 정선경찰서 거 데려다가 막 반 골병들듯이 두드려 패서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요?) 개중에는 신철수²¹⁾라는 지장산에 계시던 분은 삼청교육대까지 갔어요.

면담자: 음, 그럼 그게 9월 이후에도 그랬다는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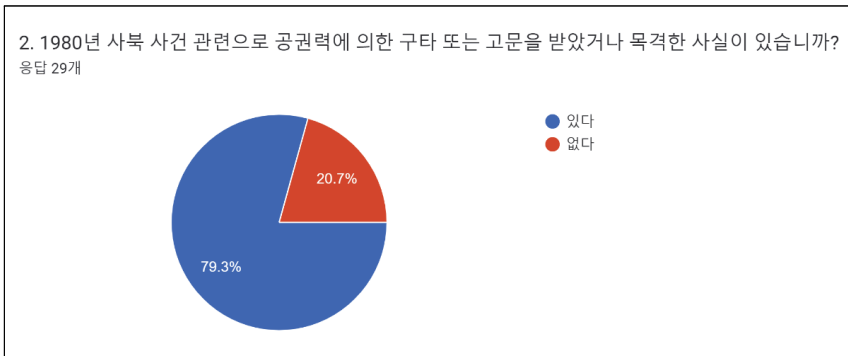
구술자: 예. 그런데 그 전에 사람들을 하도 여러 사람이 왜냐다 보니까 가만히 가만히 경찰들이 밤에 습격해 가지고 앞뒤 문을 막고 밤에 노크를 해 가지고 9시 이후에 그래 연행을 해 가지고 가는 걸, 우리는 사택이니까, 작은집에 와 있는데 그 당시에 9월 달에도 그 광부들을, 그때 그 가답자를 잡아가더라고요. 옆에 진술을 하는, 먼저 붙들려 간 사람들이 "니하고 누구하고 친했냐?" 이러면 그것도 연결 연결해서 붙들려 가지고 다 잡아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사북 사태는 [입사] 전이었지만은, 제가 9월에 드가니까 그때까지도 연행을 해갔어요. 관계자들을...(사북공공도서관 2021, 24-25).

21) 정보기관이 작성한 연행자 명단(동해물산 1980)에 “4월 16일 상경 투쟁”, “배후 선동”, “광업소 파괴” 등 혐의로 주동자로 분류된 신철수(申哲壽, 당시 37세)와 동일 인물로 보인다.

3. 고문 피해 경험

응답자 열 명 중 여덟 명(79.3%)은 공권력으로부터 구타와 고문을 당했거나 고문 사실을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관련자는 전원이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고 대답했고, 배우자나 자녀 중에서도 공권력의 구타와 고문 사실을 목격하거나 확인한 경우가 절반(배우자의 64%, 자녀의 50%)이 넘었다(〈그림 4〉 참조).

〈그림 4〉 사북 사건 관련 공권력에 의한 구타와 고문 피해 응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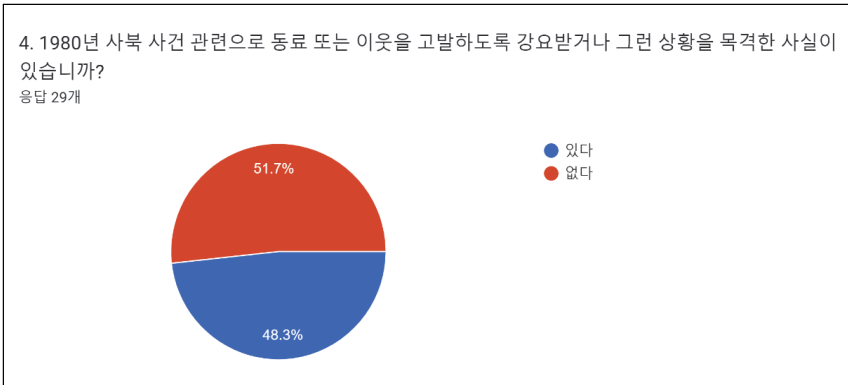
국가폭력 사건으로서 사북 사건이 보여주는 특이점은 이번 조사로 더 분명해졌다. 한국 현대사에서 한 도시 전역을 무대로 발생하여 이른바 ‘소요’나 ‘사태’로 불렸던 대규모 시위가 여럿 있었지만, 이런 사건 중에서도 사북 사건은 연행되어 조사받은 사람들이 ‘예외 없이’ 고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것은 한국의 국가폭력 사건 중 지식인이나 학생 관련자가 전혀 없이 광부와 부녀자 등 ‘하나같이’ 사회 저층의 광산촌 주민만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과 함께 사북 사건이 가진 특이점 중의 하나이다. 첫 번째 특이점은 국가의 압도적 폭력이 수많은 희생자들을 집단적 패배 의식 속에서 몰아넣고 ‘예외 없이’ 침묵하게 만들면서 사건의 재조명을 20년이나 지연시켰다는 역사적 사실과 연관이 있고, 두 번째 특이점은 수많은 지식인들과 연구자들과 정치가들이 ‘하나같이’ 그들의 동료나 친구들이 관련된 더 유명한 국가폭력 사건에 관심을 두면서 폐광과 함께 뿔뿔이 흩어진 광부들

의 비극에는 40년이 넘도록 큰 관심이 없었다는 현재적 사실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²²⁾

4. 이웃에 대한 고발 강요의 경험

사북 사건에서 잔혹한 고문을 통해 이웃과 동료에 대한 상호 고발과 거짓 진술을 강요하여 인간의 존엄을 파괴한 테러의 국면(phase of terrorism)이 있었다는 점은 이미 언급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사북 사건 관련으로 동료나 이웃을 고발하도록 강요받거나 그런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정도(51.7%)가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사건 관련자들로 응답을 좁혀 보면 열 명 중 약 여덟 명(78.6%, 11/14)이 동료나 이웃에 대한 고발을 강요당했다고 대답했다(〈그림 5〉 참조).

〈그림 5〉 사북 사건 관련 동료나 이웃을 고발하도록 강요받거나 목격한 경험



22) 사북 사건 당시 반대파 노조대의원으로서 소요 사태의 주모자로 몰렸던 이원갑(당시 40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그동안 물렸던 게 뭔가 그러면 첫째는 우리 힘이 없는 거.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은 배우지 못하고 돈 없죠. 아무 뺨도 없죠. 결국 우리나라 직업 중에서 가장 소외된, 제일 끝에 있는 광부가 된 사람들의 소리는 이 건 뭐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먹혀주지 않는 거예요.” (박다영·한정원 2021)

이번 조사 결과는, 2008년 제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문에서도 분명히 지적된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해 국가가 진실한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시행해야 할 필요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특히, 물증이 부족한 사북 사건 수사과정에서 합동수사단 수사관들은 연행자들에게 제3자의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을 강요하였고, 연행된 수백 명의 주민들은 가혹행위에 못 이겨 무고한 이웃을 서로 발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 결과 사북 주민들의 공동체는 파괴되고, 현재까지 사북 사건 관련자들끼리 감정의 응어리가 아직도 남아 있다(진실화해위원회 2008).²³⁾

5. 전직, 이직 또는 해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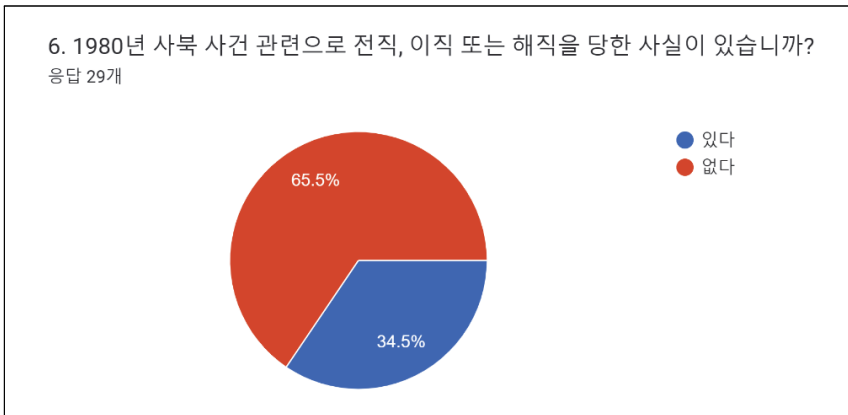
사북 사건은 관련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다. 그 중에서도 본의와 상관없이 광산을 떠나야 하는 일은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가장 큰 고통이었다. 이 주의 이유에는 사북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육체적 손상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²⁴⁾

23) 무기고 손괴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2022년 재심 법정에서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관련자 강윤희(당시 33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몸은 수사관한테 맡겨놔야 돼. 그래야만 고문을 덜 받는 거야. 무조건 예 예. 죄인이 되든가 말든가 무조건 예 예 해야 안 두들겨 맞는 거야. 다른 사람 이름을 말해야 하고.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물고 늘어진 거지. 나한테 떠넘기는 바람에. 그리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바른말을 하는데도 이게 아니더라고. 한참 맞고 나니 정신이 들어. 이게 아니구나, 저 새끼 나가는 거 보니까 이거구나. 다음에 또 불러내서 조사하는데 이제는 무조건 예 예 했어. (중략) 무기고 자물통을 부셨으면 부서진 자물통이 증거로 있어야 할 거 아니냐. 한 번 물어보라고. 그 새끼가 나더러 자물통 때리는 거를 봤다고 그 래요. ‘야 임마, 내가 자물통에 손도 안 댔는데, 접근금지라고 글자만 썼는데. 이 새 끼야 내가 왜 그러냐.’ 알고 보니 전부 다 거짓말이더라고, 보니까. 바른말 한 게 하나 없어. 그래서 지는 풀려나고 내가 잡혀 들어간 거야. 그래 가지고 일부러 내가 근처에 방을 얻어서 산다고. 저 새끼 언제 죽나 불라고. 지가 술에 취해 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 끝나는 건데, 그러면 나는 괜찮은데. 안 두들겨 맞으려고 계속 고 문시키니까 나한테 다 덮어씌운 모양이야, 완전히”(박다영 · 한정원 2021).

24) 김해용은 사북 사건으로 구속된 후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사건 이후의 삶이 순탄치 않았다: “그 후로는 몸이 아프잖아. 원래 광산에서는 3공수 반, 한 달에 3일하고 반 공수를 빠지면 해고가 돼요. 근데 내가 선산부라서 일을 세게 하니깐 몸이 아프잖아. 곡괭이질이 많이 한 날은 어깨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걸음도 잘 못 걷고. 그래 아파서 일 못 나가고, 일 나갔다가 집에 오면 드러눕고 이리다 보

이번 조사에서 사복 사건 관련으로 전직, 이직 또는 해직을 당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약 34.5%(10/29)였는데, 사건의 직접 당사자로 범위를 좁히면 14명 중 절반을 훌쩍 넘는 8명이 전직, 이직 또는 해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조).

〈그림 6〉 사복 사건 관련자들의 전직, 이직 또는 해직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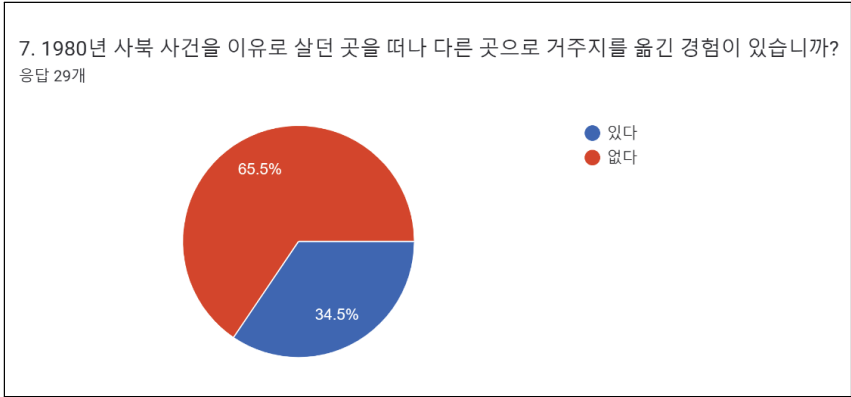
6. 거주지 이전 경험

사복 사건을 이유로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대답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었지만(34.5%, 10/29), 사건 관련자로 범위를 좁히면 그 비율이 높아져서 절반에 달했다(50%, 7/14). 이 추세라면 사복 사건 관련자 두 명 중 한 명은 사건 이후 사건을 이유로 지역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된다. 사복 사건 구속자와 연행자 명부에 등장하는 이름이 확인된 것만 2백 명에 육박하는데도 사복과 인근 지역 사회에서 사건 관련자와

니, 한 달에 세 개 빠지는 건 쉽잖아요. 그럼 바로 해고를 시키는 거래요. 오늘 여기서 일하다가도 ‘야, 니 뭐 잘못했으니까 나가’ 이러면 그 길로 해고래요. 그러면 할 말도 없어요. 내가 이 사건 때문에 맞아 가지고 아파서 일을 못 나가는데도 회사는 그걸 인정 안 해요. (중략)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판 데 가서 일자리 못 잡아요. 판 데 가면 전부 안 받아줘요. 서로서로 다 아니까. 근데도 아파서 못 나가는 일이 많으니 다시 해고되고, 그때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박다영 · 한정원 2021)

피해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조사 결과이다 (〈그림 7〉 참조).

〈그림 7〉 사북 사건 관련자들의 거주지 이전 경험



〈표 2〉에는 사북 사건 주요 관련자들의 사건 이후 10년간의 행적이 정리되어 있다. 다시 30년이 지나는 동안 이들 중 신경·이원갑·강운호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오항규·박근식·최돈혁은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이미 고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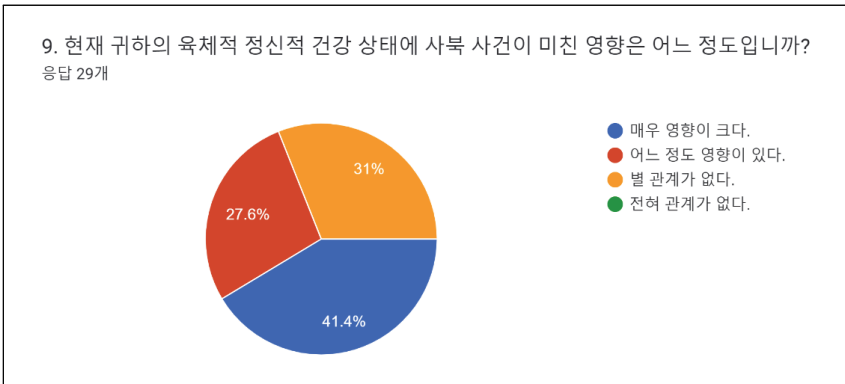
〈표 2〉 사북 사건 이후 주요 피해자 행적

이름	당시 나이	처분	사건 후 10년 간 주요 행적
신경	38세	징역 3년	복귀 실패 → 이주 → 농사
안재	27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무직 → 8년 후 광산 복귀
최돈혁	37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광산 복귀 → 6년 근무 → 이주, 자영업
오항규	48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5년 휴직 → 복귀 몇 개월 후 퇴직
이원갑	40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복귀 실패 → 이주, 보험회사 외판원 등
윤병천	31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년 후 복귀 → 1년 후 퇴직 → 광업소 복귀
강운호	33세	징역 1년	복귀 실패 → 연탄공장 → 일용직 전전
박근식	42세	불기소	광산 복귀 → 2년 후 퇴직 → 투병
구정우	28세	불기소	광산 복귀 → 이주 → 타 광산 입직
김해용	37세	불기소	광산 복귀 → 2차례 해고 → 일용직 등
안원순	36세	불기소	광산 복귀 → 4년 근무 → 퇴직 → 일용직
이완형	35세	불기소	광산 복귀 → 수개월 노동 후 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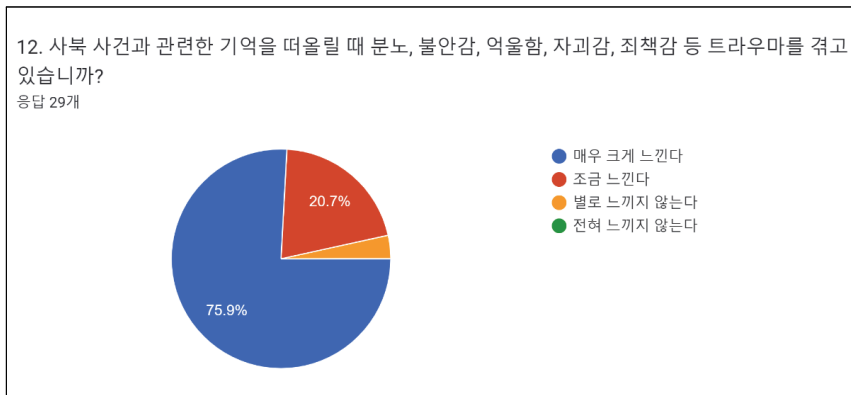
7.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친 영향

응답자 중 현재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은 44.8%였지만, 사건 관련자로 범위를 좁히면 그 비율은 78.6%(11/14)로 늘어났다. 사건 관련자의 대부분이 고령의 나이가 되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대답한 11명 모두 현재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사복 사건이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그림 8-1〉 참조). 특히, 응답자 중 사복 사건과 관련하여 분노, 불안, 자괴감

〈그림 8-1〉 관련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사복 사건이 미친 영향



〈그림 8-2〉 사복 사건 관련자 등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 상황



등 트라우마를 “매우 크게 느낀다”고 대답한 비율은 75.9%(22/29)로 매우 높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련자들은 대부분(85.7%, 12/14)이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배우자와 자녀 중에서도 트라우마를 “매우 크게” 느낀다고 대답한 경우가 66.7%(10/15)에 이르는 것을 보면, 무엇보다 앞서 사북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2〉 참조).

이번 조사에 참여했던 구정우(당시 28세)의 사례는 국가폭력이 사북 사건 관련자와 그 가족에게 남긴 자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어떤 것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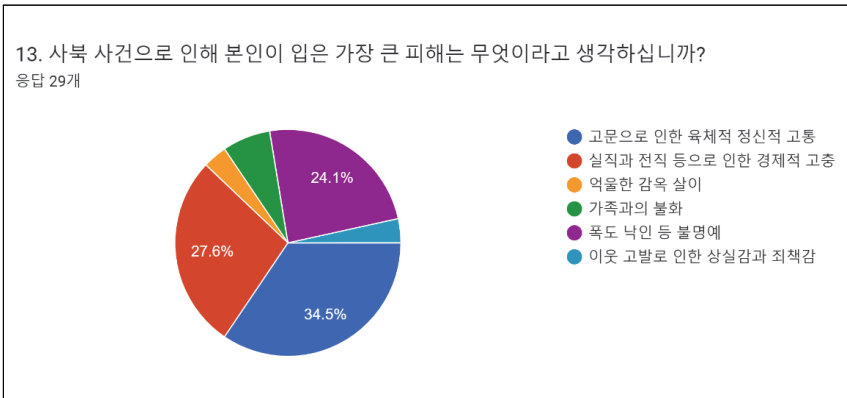
이 양반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이야기를 평생 담고 있었어요, 여태껏. 계속 경찰서 전화해서 빨갱이 잡아가라, 너희 나 빨갱이 만들어 놔다 그러고. 그런 세월을 살았단니까요. 한 20년을 넘게. 내가 그동안 사느라고 어쩔겠어요, 아주. 맨날 술만 먹고 저런다, 헛소리한다고 맨날 그랬지. 처음에 이해를 못 했지. 나중에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알지. 젊었을 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사북사태 때 갔다 왔는데 온몸이 그냥 시퍼렇게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는 알아.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5년, 10년이나 됐으면 잊어버려야 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평생 화순경찰서에 전화했어, 술만 한 모금 잡수면. 그러니까 정신이 돌았다 했지, 맨날. 오죽하면 너희 아빠를 어쩔 것이냐 막 그랬어요. 우리 가족은. 진짜 너무 괴로워 가지고, 너희 아빠 정신이 이상이 됐는가 보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막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는 폭발한 거예요. 술만 잡수면 괴로우니까 화순경찰서 전화하고 서울로 전화하고, 나 잡아가라고, 맨날. 그리고 경찰서에서 벌금 몇 번 나오고 돈 냈다고 나를 잡아. 왜 그 돈을 갚느냐고. (중략) 자기는 이제 떳떳하니까 가서 했는가는 몰라도 정신이 돈 지 알았어, 진짜로.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너희 아빠를 어쩔 것이냐, 맨날 내가 그랬어, 아기들한테. 그러니까 아기들이 엄마, 아빠 그런 데 가면 큰일 나부러. 막상 진짜 넣는다 해도 못 넣었더만. 말이 그래도. 그러니까 정신이 돌았다고 맨날 그랬지. 갑갑하니까 하도 술만 먹으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5년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째 그래가. 그랬으니 어쩔겠어 아주.²⁵⁾

25) 구정우의 아내 김성옥의 구술(박다영 · 한정원 2021).

8. 사복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성격

사복 사건 때문에 입은 피해로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문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34.5%), 그 다음이 “실직과 전직으로 인한 경제적 고충”(27.6%), “폭도 낙인 등 불명예”(24.1%) 순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대상자의 성격에 따라 더 세밀히 살펴보면, 직접 관련자의 절대 다수는 “고문” 등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반면(71.4%), 배우자와 자녀 층의 절반은 “실직과 전직 등” 경제적 상황의 악화를, 다른 절반은 “폭도 낙인 등” 사회적 평판의 실추를 가장 큰 피해로 생각하고 있었다(〈그림 9〉 참조).

〈그림 9〉 사복 사건 관련자 등이 느끼는 피해의 성격



1980년 당시 710갱에서 후산부로 일하다가 사건으로 체포되어 고문을 받았던 고 전효덕의 아내 최옥자는 사건 이후 냉랭한 시선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남편과 함께 사복을 떠났다.

그때 야, 마을 사람 분위기도 우리 아저씨가 거기 갔다 온 후로 사람들이 되게 냉하게 대하더라. 그전처럼 살갑게 대하지 않고, 그게 느껴지더라. 말 한마디를 해도, 만약 지들 애들이 우리 애들하고 놀면 ‘가하고 놀지 마, 빨리 들어와, 공부해’, 그렇게. 애들한테도 그렇고 나한테도 옛날에는 ‘누구 엄마, 누구 엄마’ 하면서 살살 그러고, 고기 같은 것도 주고 그랬는데 우리 아저씨가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대화를 거의 꺼려. 그래서 우리 아저씨는 무슨 죄가 없이 지들 갑자기 임금 올리자고 데모한 거지 어? 그리고 지들이 더 좋아진 거지. 우리 아저씨들 고생했는데 그런 걸 모르더라고. 그게 정말로 힘들었죠. 그러니까 거기 광산을 그만두고 여기 온 거 아니야. 처음에는 원주로 왔어. 우리 아저씨가 한 번 그래 갔다 와서는 광산 일을 하기 싫어하고 몸도 아프고. 그 당시에는 밤에나 낮이나 힘이 없으니까 일을 잘 못하지. 그러니까 광산 퇴직을 한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씨발, 어디 가서도 뭘 해서든 먹고 살지. 여기 아니면 못 먹고 살겠나. 우리 다른 데로 이사 가자.’ 그래서 거기서 퇴직금 받고 원주에다 학교 앞에 집을 조만한 거를 샀어요. 그때 이백몇십만 원을 주고 집을 사가지고 처음엔 할 게 없어서 구멍가게를 했어. 구멍가게도 다 얼굴을 타더라. 나는 무조건 차려 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줄 알았는데 우리 구멍가게가 여기 있고 사람들이 이쪽에 있어도 우리 집에는 안 들어오고 다른 집에만 다 가. 그러니까 그 구멍가게 1년 하다가 다 망해가 다 떨어 먹었어(박다영 · 한정원 2021).

사북 사건의 국가폭력 피해자 중 이원갑, 신경, 강윤희 등 끈기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개별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핵심 당사자인 국가가 이들을 여전히 방치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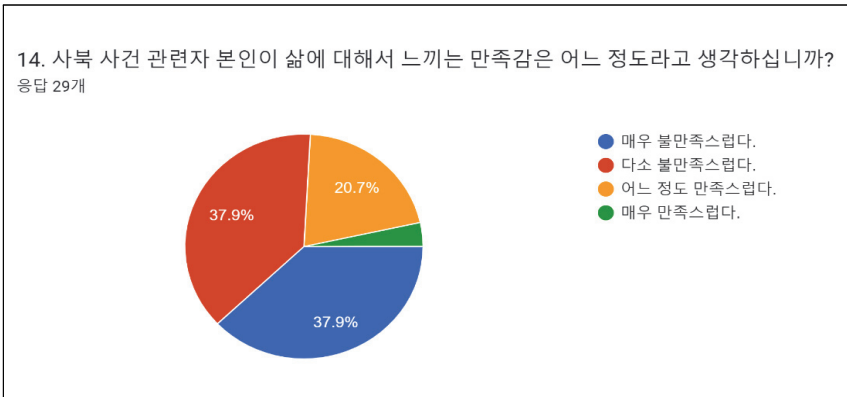
포승줄이라고 이거. 내가 기념으로 놔뒀어. 내가 고문당한 건데 이거. 내가 죽어 버리려고. 이려고 살면 뭐 하겠냐고. 자살을 하려고 정선에서 가져온 거. 내가 이거에 묶여서 고생했는데 이 줄로 죽어야 되겠다. 목숨을 끊으려고 갖고 있었다고. 그런데 차마 못 하겠더라고. 이거 기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고문당한 기념으로 내가 나한테 준 거라고. 이걸 버려버리면 아무 효과도 없잖아. 고생한 보람, 효과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갖고 다녔지. 이제 포승줄하고 내가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이거만 보면 생각이 난다고. 내 묶여 있던 거. 묶여가지고 매달려서 각목에 꿰어 가지고 주전자 물을 콧구멍에 넣어버려. 수건을 덮어 가지고 콧구멍에 집어넣는 그거 생각나지. 묶여서 매달려 있는 거 생각나고. 그 사람들, 증인들 지가 안 두들겨 맞으려고 나한테 다 갖다 붙여 가지고. (중략) 그냥 살아. 내가 배도 많이 뾰고 물로 산 지가 오래됐어요. 배고프면 물 먹고 배고프면 물 먹고 배고프면 물 먹고. 내가 노가다 일해서 살았지.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 침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준 거야.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땅바닥 생활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내가 허리 수술도 7번을 했네, 7번. 땅바닥에 누우면 일어서기도 힘들고. 못 일어섭니다, 안 됩니다 얘기를 했지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거 갖다 주더라고.²⁶⁾

9. 삶에 대한 만족감

그 사건 있고 난 다음부터 우리 집이 억수로 이렇게 기울었는데 같아. 아빠가 일을 못 하시니까. 그때 뭐 사고 싶은 거 있어도 엄마한테 울면서 매달려야 됐고, 그 사건 이후로 그랬으니까. 바뀐 것 같아요. 내 일도 못 하시니까 사주고 싶은 것도 못 사줬을 거고. 엄마, 뭐 이거 사줘 해서 울었는데 같고.²⁷⁾

사건 당시 10살이었던 김옥현은 사북 사건으로 아버지 김해용이 잡혀간 후 삶의 질이 급격히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사북 사건 관련자와 가족 열 명 중 일고여덟 명(75.9%, 22/29)은 삶에 대한 만족감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0-1〉 참조). 또한 관련자가 겪은 일이 자녀들의 삶에서 “가난과 고통의 대물림”으로 전가되거나, “불신과 원망 등” 가정 불화로 이어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그림 10-2〉 참조).

〈그림 10-1〉 사북 사건 관련자 등이 삶에서 느끼는 만족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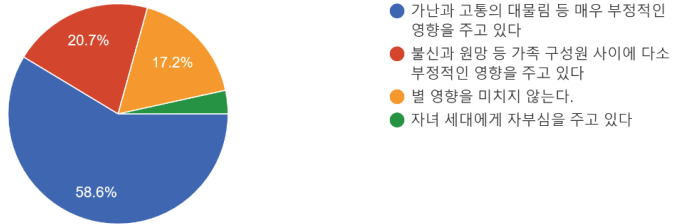


26) 강운호의 구술(박다영 · 한정원 2021).

27) 김옥현의 구술(박다영 · 한정원 2021).

〈그림 10-2〉 사북 사건이 관련자의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15. 사북 사건 관련자들이 겪은 일이 자녀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29개



사북항쟁동지회 부회장으로 일하다가 국가로부터 보상은커녕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지난 해 고인이 된 최돈혁(사건 당시 33세)은 삶의 마지막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허무함을 토로한 바 있다. 사북 사건 피해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토로한 불만감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그 표현의 방식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었다.

참, 이게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세월이 워낙 많이 지나간... 그때는 청춘인데 지금은 75세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지들이 다 죽었잖아요.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참 안타까워요. 죽은 사람, 우선 죽은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지 않았나.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주위에 법적이거나 의료적이거나 이거 뭐시기 해가지고 입증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참 허무맹랑하게 그냥 희생만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²⁸⁾

그러나 필생의 노력으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고 폭도의 오명을 간신히 벗어낸 사람이라고 해도, 이미 국가폭력의 생존자로서 이미 짓눌릴 대로 짓눌려버린 현생의 삶을 재건할 힘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28) 최돈혁의 구술(박다영 · 한정원 2021).

나한테 나라는 필요 없어요. 괜히 태어났다 싶어요. 이틀 전에 TV에서 트로트 부르는 거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나훈아가 홍시 부를 때도 많이 울었고. (중략) 나는 아무것도 안 바라요. 귀찮게 하지 말고 가만 놔두면 된다. 나는 바랄 것도 없고, 저거도 나한테 바랄 것도 없고. 그러면 나를 가만히 놔둬라. 굶으면 굶고, 살면 살고 뭐 이제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남들 보고 잘살아 보라고 하는 의욕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병신 돼 버렸으니까. 내가 말을 안 해. 말하기 싫어, 말하기 겁이 나요. 두들겨 맞을까 봐. 그 사람한테 또 두들겨 맞을까 봐. 그전에 젊었을 때는 말 잘했어요. 줄줄줄 했는데 요즘은 말을 하면 두들겨 맞을까 봐 눈치 보고 내가 먼저 말을 안 해. 사람들 보면 내가 스스로 피해. (중략) 내가 예전에 광부들 고문당한 거, 하나하나 고문당하고 내가 목격한 거 안 잊어버리려고 출감하고 나서 글로 써봤는데 지금은 없어요. 이사할 때 버려서. 제목이 ‘내가 살아온 처음’이야. 그거 제목은 안 잊어먹었지.²⁹⁾

국가폭력은 희생자를 넘어 그 가족의 삶과 희망까지 위태롭게 한다는 것, 이것이 설문조사의 마지막 응답이 보여주는 날카로운 경고이다.

IV. 조사 결과 요약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북 사건에서 불법 연행과 구금, 폭행과 고문 등 국가폭력이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모든 관련자들이 예외 없이 고문의 경험을 진술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은 1980년대 국가폭력의 가장 야만적인 사례로서 사북 사건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 사북 사건 관련자 중에 조사 과정에서 동료 또는 이웃에 대한 고발을 강요받았거나 목격한 사례가 약 80%에 이르고, 사북 사건을 이유로 전직 또는 이직한 사례(65.5%)와 지역을 떠난 사례(65.5%)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아, 사북 사건 관련자에 대한 당국의 강압적인 수사의 여파가 지역공동체 파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셋째, 사건 관련자들이 이미 고령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고문으로 인한 육

29) 강운호의 구술(박다영·한정원 2021).

체적 정신적 고통'을 본인이 입은 피해의 1순위(34.5%)로 꼽을 정도로, 사북 사건이 당사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특히 사건 관련자와 배우자, 자녀의 96.6%가 사북 사건과 관련한 기억을 떠올릴 때 분노, 불안, 억울, 자책감 등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답한 것은, 사건의 피해 보상에 앞서 사북 사건 관련 생존자와 가족이 겪은 심각한 국가폭력의 상처에 대한 치유의 필요성과 트라우마센터 설립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준다.

넷째, 사북 사건 관련자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았으며, 당사자들이 겪은 고통이 그 세대에서 그치지 않고 가난과 원망, 가정불화 등의 형태로 자녀 세대로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북 사건 피해자 구제가 자녀 세대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V. 맺는말

사북 사건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사건 관련자와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최초의 피해 실태 설문조사였다.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연락처가 확인된 피해자들의 대부분을 직접 만나 조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와 자녀들의 인식에 관한 조사가 병행된 점은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를 다루는 다른 조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이번 조사는 그동안 사북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국가폭력의 연관성과 공동체 파괴, 관련자들의 트라우마와 당사자들의 삶과 자녀 세대에 미친 사건의 여파를 논리적 추정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피해자들의 생존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고³⁰⁾ 생존자들의 건강도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사건 당사자와 배우자, 가족이 놓인 사정과 인식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는 점은 성과를 떠나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당사자 중에는 국가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아직도 침묵하고 있는

30) 앞의 주 17 참조.

사람들이 훨씬 많아서, 관련자 단체인 사북항쟁동지회조차 2006년 제1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당시 모였던 구속자 위주의 명단 정도만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현재까지 확인되고 연락이 닿는 광부 측 생존 피해자에 대한 전수 조사라고는 할 수 있으나, 실제 사건 피해자를 모두 망라한 조사는 아니다. 또 이번 조사는 사건의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병행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조사이므로, 사북 사건 관련자들이 느끼는 피해 의식에 관한 뒷받침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으나, 사건으로 파생된 실제적인 피해의 양상과 객관성을 입증하는 자료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앞으로 사북 사건 피해 실태에 관한 더 광범위하고 면밀한 조사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그러나 사북 사건 관련자들을 찾아내고 그 피해 사실을 밝혀내는 작업이 민간 차원에서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실제 사북 사건의 피해자 전수 조사를 위해서는 정부 당국이 직권으로 피해자 발굴과 자료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향후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등에서 상세한 조사를 통해 사북 사건 관련자와 가족들이 입은 구체적인 피해의 양상과 수사기록 등 입증 자료가 제대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사북 사건은 1980년대 한국의 작은 광산촌에서 벌어진 특수한 사례이지만, 국가폭력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편성이 있다. 이 중요성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마치 그름달이 보름달로 변하듯 국가폭력이 시작되고 심화되고 지속되는 모든 국면의 본모습을 사북 사건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폭력과 ‘평화들(peaces)’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사북 사건은 충분한 분석 거리를 제공해 주고 영감을 줄 것이다. 또 하나는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고, 정의로운 항거자가 폭도로 뒤바뀌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저항과 폭력의 양면성(double-sidedness)과 경계성(borderline issue)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한다는 점이다. 사북의 광부들이 계엄 치하에서 폭력 시위를 벌이고 지서와 광업소를 파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결국 국가폭력 또는 테러의 연약한 표적에 불과했다.³¹⁾

31) “오로지 국가만이 시민에 대해 마음대로 불도저를 사용하거나 자경단(vigilante mobs)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Chowdhury 2022).” 일반적으로 국가폭력은 법

1980년 사복의 검은 원일오와 2020년 미국 미네소타의 검은 조지의 운명은 달랐다. 사복에서 경찰 지프차에 깔려 초주검이 된 광부 원일오의 모습이 사진으로 남지 않은 반면, 백인 경찰의 무릎에 눌러 신음하는 검은 조지의 모습은 전 세계인이 기억하는 장면이 된 것이다.³²⁾ 4월 사복의 광부들과 5월의 광주의 시민들이 마주했던 국가폭력은 다른 것이 아니었지만, 백주대낮에 벌인 광부들의 폭력상이 카메라에 포착된 사복은 40년 동안 비난받고 잊혔고, 백주대낮에 벌어진 계엄군의 만행이 카메라에 잡힌 광주는 40년 동안 칭송받고 기억되고 있다(공용철 2004). 이처럼 국가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이슈를 아우르는 사례로서 사복 사건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더 깊은 탐구와 분석을 기대한다.

과 질서의 수호라는 명분으로 합리화하기 쉽고 밀실의 폭력은 드러나지 않는 반면, 억압에 대항하는 군중의 행동은 불법과 무질서로 비난받기 쉽고 거리의 폭력도 드러나기 쉽다.

- 32) 1980년 4월 21일 한국 강원도 정선군 사복에서 광부 원일오는 정선경찰서 이운선 등이 몰고 달아나는 경찰 지프에 깔려 초주검이 되었다(이미영 2002).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파우더호른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페리 플로이드(George Perry Floyd)는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의 무릎에 눌러 질식사하였다. 데릭 쇼빈은 2급 살인죄를 적용받았지만, 원일오의 삶을 망가뜨린 경찰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붙임자료 1] 1980년 사북 사건 피해 실태 조사 설문지(2022.9.)

1980년 사북 사건 피해 실태 조사(관련자)

* 필수항목

A. 응답자 분석

1. 현재 거주지를 선택하세요. *
☐ 선택
2. 연령대를 선택하세요. *
☐ 선택
3. 현재 직업을 선택하세요. *
☐ 선택
4. 성별을 선택하세요.
☐ 선택
5. 귀하에 해당하는 내용을 아래에서 고르세요. *
☐ 사북 사건 관련자
☐ 사북 사건 관련자의 배우자
☐ 사북 사건 관련자의 자녀 또는 친족
☐ 기타:

B. 사북 사건으로 인한 피해 조사

1. 1980년 사북 사건 관련으로 연행, 구금, 또는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있다
☐ 없다
2. 1980년 사북 사건 관련으로 공권력에 의한 구타 또는 고문을 받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있다
☐ 없다
3. 1980년 사북 사건 관련으로 광부 또는 부녀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거나 폭행 피해를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있다
☐ 없다

4. 1980년 사복 사건 관련으로 동료 또는 이웃을 고발하도록 강요받거나 그런 상황을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있다
- ☐ 없다
5. 1980년 사복 사건 관련으로 구속, 기소 또는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있다
- ☐ 없다
6. 1980년 사복 사건 관련으로 전직, 이직 또는 해직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있다
- ☐ 없다
7. 1980년 사복 사건을 이유로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험이 있습니까?^{*}
- ☐ 있다
- ☐ 없다
8. 현재 귀하의 건강 상태는 어떠합니까?^{*}
- ☐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 ☐ 건강이 조금 좋지 않다
- ☐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
- ☐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
9. 현재 귀하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사복 사건이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 ☐ 매우 영향이 크다.
- ☐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 ☐ 별 관계가 없다.
- ☐ 전혀 관계가 없다.
10. 현재 귀하의 경제 상황은 어떠합니까?^{*}
- ☐ 경제적인 어려움이 매우 크다
- ☐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소 있다
- ☐ 경제적인 어려움이 별로 없다
- ☐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다
11. 현재 귀하의 경제 상황에 사복 사건이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 ☐ 매우 관련이 크다.
- ☐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 ☐ 별 관계가 없다.
- ☐ 전혀 관계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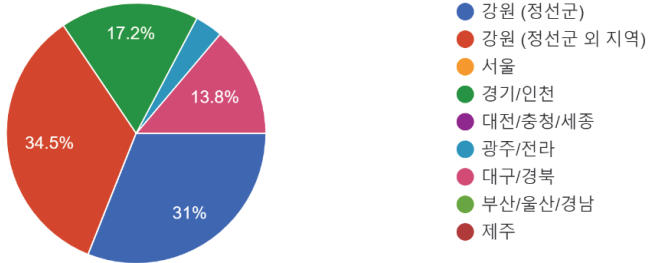
12. 사복 사건과 관련한 기억을 떠올릴 때 분노, 불안감, 억울함, 자괴감, 죄책감 등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까?^{*}
- ☐ 매우 크게 느낀다
 - ☐ 조금 느낀다
 - ☐ 별로 느끼지 않는다
 - ☐ 전혀 느끼지 않는다
13. 사복 사건으로 인해 본인이 입은 가장 큰 피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고문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 ☐ 실직과 전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고충
 - ☐ 억울한 감옥 살이
 - ☐ 가족과의 불화
 - ☐ 폭도 낙인 등 불명예
 - ☐ 이웃 고발로 인한 상실감과 죄책감
14. 사복 사건 관련자 본인이 삶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불만족스럽다.
 - ☐ 다소 불만족스럽다.
 - ☐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
 - ☐ 매우 만족스럽다.
15. 사복 사건 관련자들이 겪은 일이 자녀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가난과 고통의 대물림 등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 ☐ 불신과 원망 등 가족 구성원 사이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 ☐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자녀 세대에게 자부심을 주고 있다

[붙임자료2] 응답 결과 요약표

A. 응답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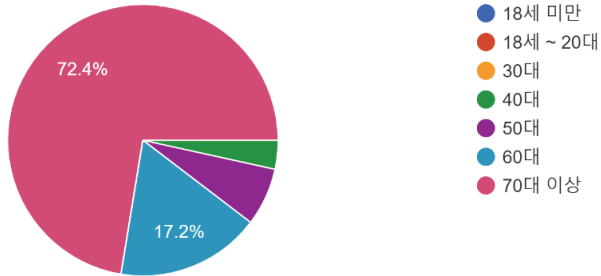
1. 현재 거주지를 선택하세요.

응답 2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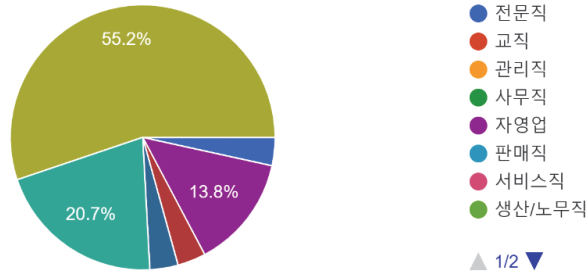
2. 연령대를 선택하세요.

응답 2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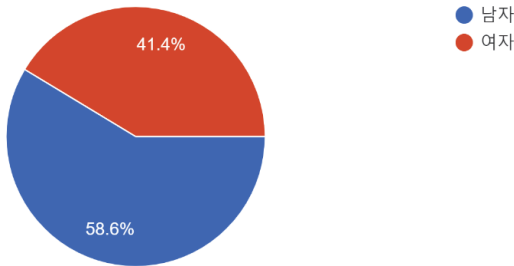
3. 현재 직업을 선택하세요.

응답 2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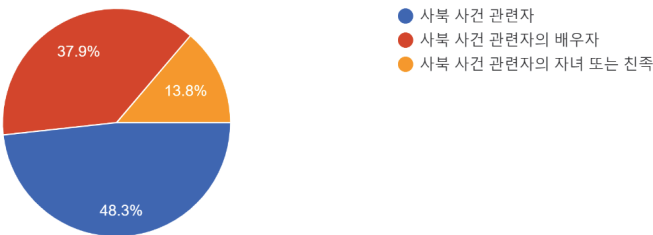
4. 성별을 선택하세요.

응답 29개



5. 귀하에 해당하는 내용을 아래에서 고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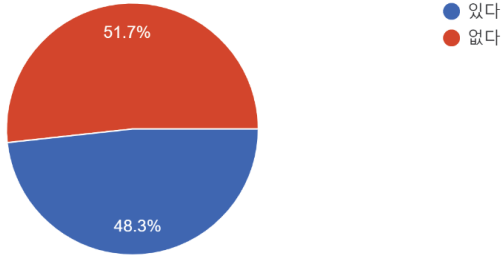
응답 29개



B. 사복 사건으로 인한 피해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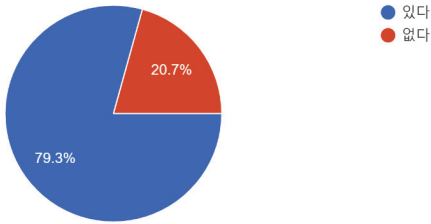
1. 1980년 사복 사건 관련으로 연행, 구금, 또는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응답 2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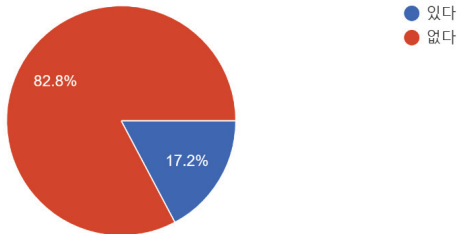
2. 1980년 사복 사건 관련으로 공권력에 의한 구타 또는 고문을 받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

응답 2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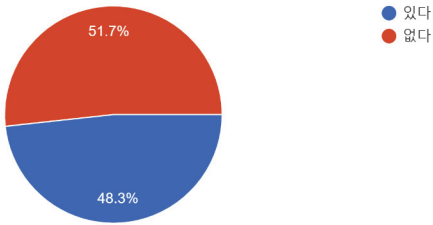
3. 1980년 사복 사건 관련으로 광부 또는 부녀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거나 폭행 피해를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

응답 2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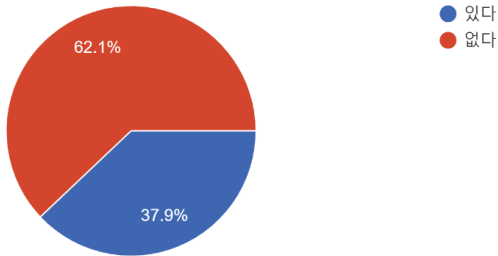
4. 1980년 사북 사건 관련으로 동료 또는 이웃을 고발하도록 강요받거나 그런 상황을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

응답 2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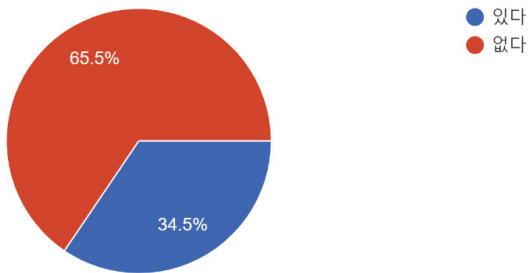
5. 1980년 사북 사건 관련으로 구속, 기소 또는 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응답 2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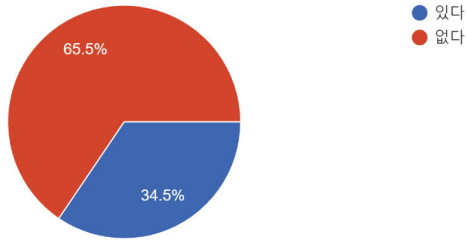


6. 1980년 사북 사건 관련으로 전직, 이직 또는 해직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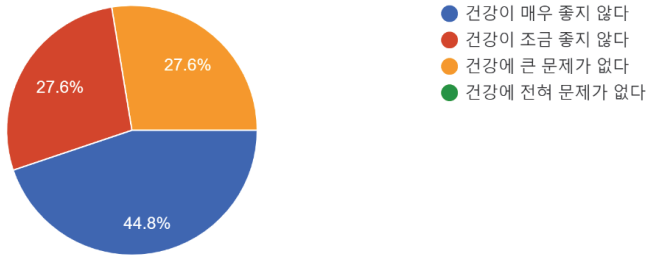
응답 2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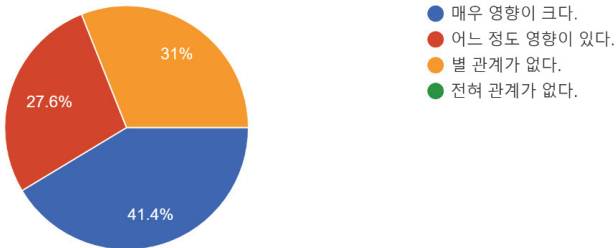
7. 1980년 사북 사건을 이유로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험이 있습니까?
 응답 29개



8. 현재 귀하의 건강 상태는 어떠합니까?
 응답 2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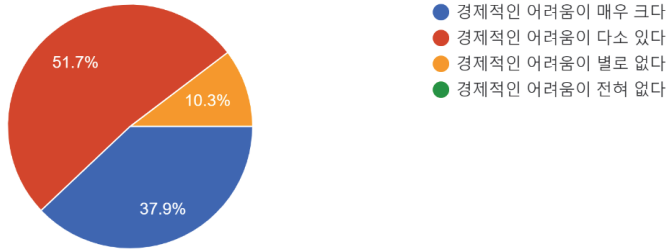


9. 현재 귀하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사북 사건이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응답 2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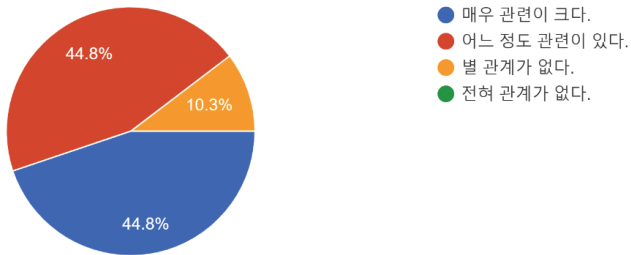
10. 현재 귀하의 경제 상황은 어떠합니까?

응답 2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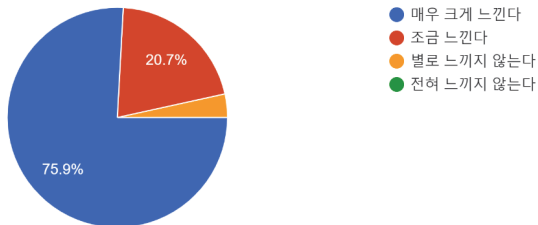
11. 현재 귀하의 경제 상황에 사복 사건이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응답 2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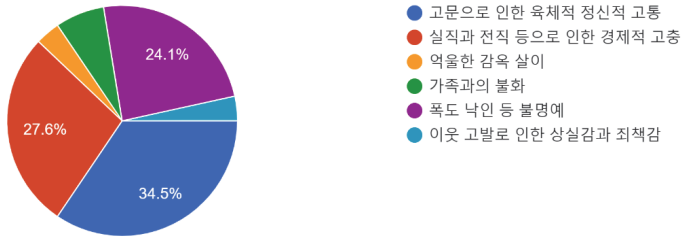
12. 사복 사건과 관련한 기억을 떠올릴 때 분노, 불안감, 억울함, 자괴감, 죄책감 등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까?

응답 2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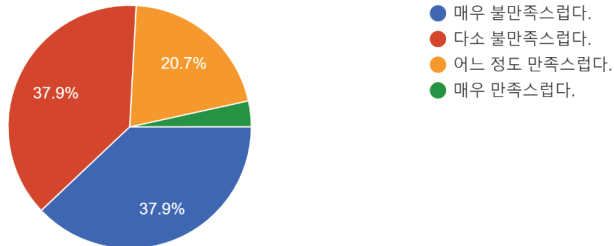
13. 사북 사건으로 인해 본인이 입은 가장 큰 피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2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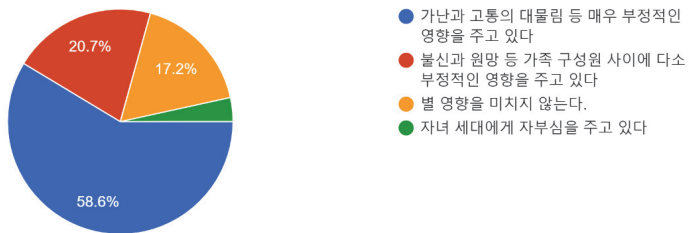
14. 사북 사건 관련자 본인이 삶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29개



15. 사북 사건 관련자들이 겪은 일이 자녀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29개



황인옥은 정선지역사회연구소 소장, 정선군 사북공공도서관 관장이다. 사북 사건 과거사정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 『사북항쟁과 국가폭력』 (서울: 지식공작소, 2021)

참고문헌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보안과. 1980a. “민간인부상자 명단”(4월 29일). 『사복사태 분석보고』.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보안과. 1980b. “公傷警察官名單”(4월 30일 현재). 『사복사태 분석보고』.
- 공용철. 2004. “우리는 폭도가 아니었다. 사복 광부 이원갑.” 『KBS인물현대사』(11월 26일). <https://m.blog.naver.com/hyung9624/221345935245>(최종검색일: 2022/11/11).
- 김선식. 2012. “‘사복 항쟁 주동’ 35년 만에 무죄.” 『한겨레신문』(2월12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8070.html(최종검색일: 2022/11/11).
- 김아람 · 문민기 · 장미현 · 후지타 타다요시. 2017. “사복 항쟁 참여자의 삶과 기억.” 『2017년도 구술자료수집보고서』. 국사편찬위원회.
- 동해물산. 1980. “사복광부난동사건 관련자 명단.”
- 문민기 · 김세림 · 김아람 · 장미현 · 후지타 타다요시. 2018. “사복 항쟁 참여자의 삶과 기억(2).” 『2018년도 구술자료수집보고서』. 국사편찬위원회.
- 박다영 · 한정원. 2021. “사복항쟁 고문실태 구술.” 진실의 힘.
- 박봉남. 2020. “사복 사건 기록다큐 인터뷰 녹취록.” 영화사 느티.
- 박철한. 2002. “사복항쟁연구: 일상, 공간, 저항.”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 사북공공도서관. 2020. 『주민참여구술기록집: 광산촌 공동체의 기억1』. 정선군.
- 사북공공도서관. 2021. 『주민참여구술기록집: 광산촌 공동체의 기억2』. 정선군.
- 송철원. 2018. “사북노동항쟁 관련 구술아카이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s://archives.kdemo.or.kr/oral-archives/main/247/1>(최종검색일: 2022/11/11).
- 역사문제연구소 민증사반 사북팀. 2020a. 『사북항쟁구술자료총서 1 - 1980년 사복 항쟁의 발발과 명예회복 과정』. 서울: 도서출판 선인.
- 역사문제연구소 민증사반 사북팀. 2020b. 『사북항쟁구술자료총서 2 - 1980년

- 사북 여성의 탄광살이와 항쟁 참여』. 서울: 도서출판 선인.
-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 사북팀. 2020c. 『사북항쟁구술자료총서 3 - 1980년 사북 항쟁과 그 이후의 삶』. 서울: 도서출판 선인.
- 이미영. 2002. “먼지 사북을 묻다(Dust Buries Sabuk).” <https://www.youtube.com/watch?v=5y7HB9C9PFM>(최종검색일: 2022/11/11).
- 정선지역사회연구소. 2018. “사북항쟁 여성 고문 피해자 증언 녹취록.”
- 정선지역사회연구소. 2021. “사북항쟁 관련자 명단 종합정리.”
- 정선지역사회연구소·진실의힘. 2021. “사북항쟁 시기 국가폭력의 실상과 특이점에 관한 조사보고서.”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80년 사북 사건.” 『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제3권, 139-218.
- 한겨레사회부. 1988. “시국사범 고문피해 성난 폭로 잇따라.” 『한겨레신문』(12월 25일).
- 홍춘봉. 2022. “사북항쟁, 억울한 옥살이 강운호씨...42년 만에 ‘명예회복.’” 『프레시안』(1월 28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12814241937162>(최종검색일: 2022/11/11)
- 황인오. 1984. “사북사태 진상보고서.” 『일터의 소리』. 서울: 지양사.
- 황인옥·박다영·한정원. 2021. 『사북항쟁과 국가폭력』. 서울: 지식공작소.
- Blakeley, Ruth. 2012. “State Violence as State Terrorism.” Breen-Smyth, Marie, ed. *The Ashgate Research Companion to Political Violence*. London: Routledge.
- Prasenjit. 2022. “How the State triggers violence.” 『Deccan herald』(JUN 28). <https://www.deccanherald.com/opinion/comment/how-the-state-triggers-violence-1122253.html>(최종검색일: 2022/11/11)
- Steve. 2021. “Terrorism by the State is still Terrorism.” <https://www.birmingham.ac.uk/research/perspective/terrorism-by-the-state-is-still-terrorism.aspx>(최종검색일: 2022/11/11).

Abstract

The Long Shadow of State Violence: The Results of a Victim Survey of the Sabuk Incident in 1980

Hwang, Inuk^{*}

In this research, the ‘Sabuk incident’ refers to an incident of state violence perpetrated against hundreds of residents of a small mining village in Gangwon-do who resisted the imposition of martial law in April 1980. The victims of the Sabuk incident can be rough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e first are those who were tried and had their sentences upheld. The second category is those who were arrested by the police without a warrant and released after being subjected to horrific violence, including beatings and torture, in the name of state power. And the third category refers to the spouses and children of victims who pass on poverty, pain and trauma due to the unjust harm suffered by their parents’ generation.

This article presents the results of the first full survey on actual harm conditions conducted by the Jeongseon Community Research Center for one month from August 2022 among the victims of the Sabuk incident. The results of the victims’ responses to the general questions comprehensively show how the patterns of harm raised in relation to the Sabuk incident affect the lives of those who were directly involved in the incident, as well as the lives of their children’s generations.

^{*} Director of Jeongseon Community Research Center, inuk077@gmail.com

Key Words: Sabuk incident, state violence, state terrorism, victims survey, trauma

논문투고일: 2022. 11. 03.

논문심사일: 2022. 12. 01.

게재확정일: 2022. 12. 15.